

金浩星교수의 논문 “『菩薩戒本持犯要記』의 性格論에 대한 再檢討”에 대한 論評

최 성 텔 / 조선대 철학과 교수

김교수가 논제로 삼은 “『菩薩戒本持犯要記』의 성격”은 대승계율에 대한 元曉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효는 이 책의 앞머리에서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속마음은 삿되나 겉보기에는 바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잡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속마음은 맑고 깨끗한 경우도 있다.

이 책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 문제를 이렇게 까지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단순 구조를 갖는 소승의 그것에 비하면 실로 난해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듯해서 심층적 분석이 없이는 이해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리라.

김교수는 그런 원효의 생각의 깊이를 “요석과의 관계맺음”에서 찾고 있다. “無碍行”으로 평가되고 있는 ‘요석과의 관계맺음’을 “스스로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破戒가 무애행을 위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파계로 인하여 그에

대한 치열한 자기참회로서 무애행이라고 하는 민중과의 同事攝/同塵行이 행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복선을 깔아 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김교수는 “어쩌면 그가 破戒했기 때문에 더욱더 戒學에 대한 의식을 놓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수행인의 자기 투시를 간과하지 않는 치밀함이나, “그의 實存이 잘 투영된 텍스트들로서 『大乘六情懺悔』와 『要記』(보살계본지범요기)를 들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서 이 글이 시작되고 있어 “재검토”란 말이 썩 잘 어울린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주목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논평자가 주목한 것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용어 선택의 신중함에 대한 문제이다.

김교수는 이 논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의 제기”에서 이 책(『보살계본지범요기』)을 곧바로 『要記』라고 약칭하고 있다. 논평자는 약칭한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제목인 『菩薩戒本持犯要記』는 菩薩戒를 받아 지니고(持) 범하는 데 있어서(犯) 그 요점(要)을 기록한(記) 것이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싶다. 이 점은 이미 김교수 자신이 “表: 『要記』에 대한 元曉의 科目”에서 “持犯之要”(원효의 용어이긴 하지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서 논평자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要記』라고 약칭할 경우 원효의 또 다른 要記(?)인 『梵網經持犯要記』는 어떻게 약칭할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 명료함만을 내세워 약칭할 경우에 발생하는 혼란을 미리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要記』를 고집해야 할 이유나, 혹시 논평자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인용문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김교수는 ‘원효의 삶’에서 “失戒”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三國遺事』 第4卷 第5 義解篇 「元曉不羈」의 내용 중에 있는 이른바 원효의 破戒를 ‘상당히 의식적인 행위였다’, ‘스스로의 의식은 계율의 외면성을 허물지 않는다’, ‘원효 스스로 파계승임을 인정한다’와 같이 세 가지

로 요약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효가 제도권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無碍行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의 참회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논평자는 김교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즉 처음과 두 번째의 근거인 ‘상당히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점과 ‘스스로의 의식은 계율의 외면성을 허물지 않는다’는 것은 참회행으로 연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것은 전혀 그럴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를 논평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김교수는 ‘無碍行’의 근거를 ‘同塵行’에서 찾고 있다. 곧 “스스로 파계승임을 인정→제도권 밖으로 뛰쳐나감→天下에 그 혼자만이 존재하는 唯一者/孤獨者가 된 것이다. ……”, 그리하여 同塵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니 흔히 그 이후의 행을 일러 無碍行이라고 말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김교수의 말대로 “同塵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참회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제도권 밖으로 뛰쳐나온 것을 적극적인 중생교화, 즉 啓導的인 의미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책의 저술 동기인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잡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속마음은 맑고 깨끗한 경우도 있다”는 것과도 자연스럽게 부합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무리한 논지 전개에 대한 문제이다.

김교수는 역시 ‘원효의 삶’에서 원효의 속마음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다.

그래 그렇다. 나는 파계하였다. 그래서, 이제 小姓거사다. 그대들이 스스로 계를 지킴은 참으로 훌륭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持戒相에 머물러서 파계자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自讚毀他하게 되리라. 그 역시 犯戒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어찌면 더욱 중한 범계가 될지도 모른다. 달마계본에서 그러한 자찬훼타를 제1계로서 경계하고 있음을 보지 못했던가.

논평자가 ‘무리한 논지 전개’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김교수는 원효의 속마음을 구성하기 전에 『宋高僧傳』을 먼저 인용하였다.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왕경 백고좌 대회 때 원효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였다. “옛날에 백 개의 서까래를 뽑을 때에는 비록 참여할 수 없었으나, 오늘 아침 한 개의 기둥이 놓일 곳에는 오직 나 혼자 능히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김교수는 ‘무애행→『要記』로 보고 있다. 그것도 李丙旭의 ‘『要記』→ 무애행’과 비교하면서, …….

그러나 논평자는 김교수에게 묻고 싶다. “옛날에 백 개의 서까래를 ……”라고 한 것은 자찬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것 봐라’라는 의기양양한 회심의 미소가 그대로 비쳐지는 아주 인간적인 毀他가 다분한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느냐고 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의 질문과 연결해 보면 失戒 이후의 행을 무애행→보살행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원효의 속마음/底意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논평자는 하게 된다.

‘인간성 상실’, ‘道德 不在’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작금에 김호성교수의 논문을 읽고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상한 고견을 듣고 싶다.